

향가신해독

저자 (Authors)	이탁
출처 (Source)	한글 (116) , 1956.2, 445-492(48 pages) HAN-GEUL (116) , 1956.2, 445-492(48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글학회 The Korean Language Societ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350054
APA Style	이탁 (1956). 향가신해독. 한글(116), 445-492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10/09 14:55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鄉歌新解讀

目次

李 鐸

序言	1		
1. 薯童謠	5	14. 處容歌	24
2. 彗星歌	6	15. 禮敬諸佛歌	26
3. 風 謠	8	16. 稱讚如來歌	28
4. 願往生歌	8	17. 廣修供養歌	30
5. 簾竹卮歌	10	18. 懺悔業障歌	32
6. 獻花歌	12	19. 隨喜功德歌	34
7. 怨 歌	13	20. 請轉法輪歌	36
8. 兜率歌	14	21. 請佛住世歌	38
9. 祭七妹歌	16	22. 常隨佛學歌	40
10. 讚耆婆郎歌	17	23. 恆順衆生歌	42
11. 安民歌	19	24. 普皆迴向歌	44
12. 禱千手觀音歌	21	25. 總結先盡歌	46
13. 遇賊歌	22		

序言

三國遺事 및 均如傳에 漢字借用으로 記錄되어 있는 世稱 鄉歌라 하는 新羅歌謠 二十五首는 우리 上古歌謠의 惟一한 遺品으로서 이것을 正確히 解讀하는 것은 우리 詩歌文學의 源流를 探究하는데 있어서나 우리 國語의 發達過程을 闡明하는데 있어서 餘간 重要的 것이 아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이것에 손을 대어 荊棘을 헤치고 새 길을 열어 놓은 이가 日本 사람 小倉氏인 것은 숨길 수 없는 事實으로, 다시 該 博한 傍證과 精緻한 古語法으로 後人의 길을 더욱 넓혀 놓은 이가 梁柱東 教授인 것은 世上이다. 이는 바이거티와 나는 두 분의 努力에 對하여 敬意를 表하는 바이다.

그러나 두 분의 解讀을 읽어 보면 말이 씨가 먹지 않고 뜻이 一脉貫通되지 않는 데가 많아서 마땅히 現代의 古物인 모더니즘의 詩를 읽는 것과 같은 느낌을 일으키는데 이것은 그 解讀에 誤謬가 많다는 것을 그 解讀 自体가 證左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두 분이 다 우리 古語 研究의 權威으로 또 그들의 解釋 方法이 科學的인 데도 불구하고 그 解讀의 結果가 어찌하여 이와 같이 되었을까? 그것은 그들이 古語 探究에 가장 必要한 武器를 장만하지 않은 까닭이라 생각한다. 아무쪼록 解讀을 잘리는 사람이라도

배를 가리지 않고 맨몸으로 바다를 건널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古語 探究의 方法이 精深하다 할지라도 古語를 探究하는 武器가 없이는 巧문한 古語를 찾아낼 道理는 없는 것이다. 鄉歌에 쓰인 漢字음이냐 우리말은 그 當時의 모양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이냐 이것을 後世에 遺形된 李朝 文獻에 남아 있는 漢字음이냐 우리말을 그대로 가지고만 읽어서는 거기에 들어맞을리가 萬無한 것이다.

그러면 무슨 方法으로 그 古音과 古語를 찾아낼 것인가? 그것은 漢字음이냐 우리말의 歷史的 變遷 法則을 發見하여 가지고 그 音韻法則에 나타나는 對應關係에 依하여 그 當時의 음이나 말을 찾아내는 수 밖에 없는 것이냐 이것이든 漢字음이냐 우리말의 古形을 찾아내는 唯一한 武器로서 나치 바다를 건너가는데 배에 타갈만한 것이다.

두분의 解讀에 疑問을 품은 나는 이러한 생각에서 비롯된 漢字音과 우리말의 歷史的 變遷 法則을 發見하여 보기로 하고 解放 卽後부터 이에 着手하였던 바 20여 해에 이르는 音韻法則을 손에 十餘冊씩 얻게 되었는데 이 音韻法則에 依하여 漢字의 古音이냐 우리말의 古語를 더듬어 보면 後世의 그것과 영달하게 들린 것이 여간 많은 것이 아니다.

이제 이 '鄉歌 新解讀'이란 것은 이 音韻法則에 依하여 漢字의 古音이냐 우리말의 古語를 推定하고 다

傍註를 연어 이것을 確實히 考證하여 읽노라고 한 것이다. 이 草案은 4282度 서울 師範大學에서 濶義한 草案으로서 다시 다듬을 餘暇를 얻지 못하여 踈漏한 點이 많은 것이만큼 亦是 誤謬가 많은 것도 免할 수 없는 것이 것이다. 그러나 描譯法에 別로 鉅額한 代價가 없었듯이 一脉貫通하게 된 것은 前人들의 兩譯과 特히 다른 點이 아닐까 생각한다.

읽는 이의 理解를 爲하여는 必한 點이 여기에 應用한 音韻法則을 發表하여야 할 것이요, 읽는 이의 疑惑을 풀기 爲하여는 傍註的 注釋을 함께 붙여야 할 것이요, 그러나 몇해를 두고 別로 보아도 좀처럼 그러한 餘暇를 얻을 수 없으므로 이제는 尙한 兩譯의 原文만이라도 發表하여 大方의 批評을 받기로 하는 마이다.

끝으로 이 兩譯을 읽으시는 이에게 몇가지 諒解를 비는 점을 적으면 다음과 같다.

1. 古文을 兩譯함에 있어서 그 解釋하려는 文章의 順序는 現代語와 가장 接近한 後代인 것으로 부터 逆作하여 漸次 前代인 것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原則인 것이다. 그러나 鄕歌 解釋에 必要한 傍註는 三國史記의 地理人畧 같은 데에서 많이 찾을 수 있는데 이것은 最後代의 鄕歌인 均如傳인 것보다는 三國遺事에 收錄된 鄕歌와 더 密接한 時代의 陶師이 있으므로 本兩譯의 順序는 前代인 것에서 부터 後代인 것에 밀기 하는 것으로 定하였다.

2. 鄉歌에 借用된 漢字의 音이냐 訓을 現代의 音이냐 訓을 標準하여 보면 子音에 있어서는 같은 部位의 子音 聲通用한 것이 많으나 例하면 (丁). "ㄱ이 所音=므슴, 頓部ㅁ= 두뭇, 馬落= 불도(박말)" 과 같이 唇音의 "ㅇ, ㅂ" 을 通用한 것 (ㄴ). "道尸=길, 有ㅁ=있, 辭ㅁ=말" 과 같이 前舌音의 "ㄱ, ㄷ, ㄹ" 을 通用한 것과 같은 것들이다.

그러나 이것은 現代의 音이냐 訓을 標準하여 보니까 通用으로 보이는 것이요, 그 當時의 것으로는 通用이 아닌 것이나 (丁) 옛 것은 아직 分해히 斷言할 수 없으나 이것은 "ㅇ, ㅂ" 이 아직 分化되지 않고 한가지 音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ㄴ) 옛 것은 現代音으로의 "ㄹ" 은 當時音으로는 다 "ㄷ" 이었던 것이 確證되는 것이다.

그리고 母音에 있어서는 "頓部ㅁ= 두뭇(ㅁ=ㅇ, ㅌ=ㅇ), 鳴良角= 쿠런이(ㄴ=ㅌ, ㅌ=ㄷ), 毛ㅁ= 말(ㄴ=ㅌ), 馬訓말= 語訓말(ㅇ=ㅌ), 善陵= 스릉(ㅌ=ㅇ, ㅌ=ㅇ), ㅌㅍ= 문(ㅌ=ㅇ) 과 같이 거의 通用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도 當時音으로는 서로 同一한 까닭에 그러 된 것이 있는 것은 勿論이나, 서로 同一하지 않은 것을 通用한 것도 적지 않으나 그것은 아마 語音의 聽覺的 重點이 語音의 聲源的 要素인 子音에 있고 聲路的 要素인 母音에 있지 않으므로 母音에서 그 작은 差異는 그리 拘碍하지 않은 것인 듯하다. 그러므로 그 작은 差異는 明白 性質의 것이 못다고 생각하고 그 差異의 큰 것만 明白히 하겠다.

3. 畧註는 漢字의 풀이나 訓을 前人들과 特別히 다르게 읽은 것
 에 限하여 불인바, 그것도 너무 간단하여 있으나 하나 한 것을 未
 安히 생각하며, 또, 여기에 쓰인 文法的 用語도 筆者가 아직 一
 定한 文法的 體系를 가지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남기 것도 잘 記
 憶하고 있는 것이 없는만큼 그때 그때 대응 없이 적어서 統一을
 缺한 것이 많을 것을 부끄러워하는 바이다. 4286.4.3 筆者

第一. 薯童謠 新羅第二十六世 眞平王 次子 百濟武王 微時

表音
未語
現語
大意

善化公主主隱, 他密只嫁良置古
 善化公主님은, 남몰이 열아 도고
 善化公主님은, 남몰이 열아 도고
 善化公主님은, 남몰래 열러 두고
 善化公主님은(薯童이) 남몰리게(秘密히) 열러붙어두고

2
音
語
現
意

薯童房乙, 夜矣 卯乙 抱遺 去如
 마 동방을, 밤이 문을 안고 가도
 만 동방을, 밤이 문을 안고 가도
 만 동방에, 밤에 무엇을 안고 가다
 (秘密히 열러 둔)薯童이 방에(남몰리게) 밤에 무엇을 갖고
 가더라.

田各言主

1. 密只, 密=音借문, 只=音단의畧借, 문이="모르"의 前次語 "문"의 副詞制 "문"의 借記(只의 原音 ㄷ>ㄱ>디)
2. 卯乙, 卯=音借문="무엇"의 原語(卯의 原音 ㅁ=目, 墨=문="목"의 前次音)

4. 道(도) 掃(소) 星(성) 望(망) 古(고), 慧(혜) 屋(옥) 也(야) 白(백) 反(반) 也(야) (人(인) (是) 有(유) 此(치) 多(다)
 音 길(리) 슬(리) 별(리) 바라(야)고, 살(벌)여 슬(문)이 (이)(이) 잇(시) 다
 語 길 슬 별 바라고, 살(벌)여 슬(문)이 잇(다)
 現 길 쓸 별 바라고, 살(벌)이야 말(한)이 있다
 意 (또, 그들을 위하여 길을 쓸이 주려고 나르나) 길 쓸을 별을 바라보고서 '살(벌)이야' 하고 (소리쳐서) 말(한) 이가 있다

5. 後(후) 句(구), 達(달) 阿(아) 羅(라) 浮(부) 去(거) 伊(이) 等(등) 耶(야), 此(이) 友(우) 物(물) 北(북) 所(소) 音(음) 慧(혜) 只(적) 有(유) 此(치) 故(고)
 音 (아)라 돌아 (하) 벌야 이(시) 등(다), 이 (이) 볼(들) 므(스) 살(려)야 잇(시) 등(다)
 語 아(라) 돌아 벌야 잇(다) 등(다), 이 볼(들) 므(스) 살(려)야 잇(시) 등(다)?
 現 아! 달이 비가 있는 것이다, 이 밖(밖) 무슨 살(벌)이 있(나)?
 意 아! (그러나 그것은 잘못 안 것이다, 나는 보(보)주(주)(밖)은) 달이, (길)쓸(쓸) 비가 있는 것이
 다. 이 밖(밖)에 (무)슨 살(벌)이 있(나)? (즉 그것은 天災豫言의 살(벌)이 아니라 길을 쓸 祝禱의 現)

畧 註 () 안 잇(것) = 讀法表示, () = 二重讀法表示.

1. 7. 舊(舊) 訓(訓) 借(借) 現(現), L. 遊(遊) = 訓(訓) 借(借) 現(現) = "구(구) 들(들) 장(장) 이(이) 놀(놀) 아(아)" 의 "놀", C. 乾(乾) 達(達) 婆(婆) 失(失) 遊(遊) 鳥(鳥)
 隱(隱) 城(城) 此(此) = 屋(屋) 氣(氣) 樓(樓). 3. 7. 三(三) 花(花) 의(의) 花(花) = 花(花) 郎(郎) = 國(國) 仙(仙), 本(本) = 精(精) 純(純), 心(心) = 丁(丁) = 成(成) 人(人) 男(男). L. 오(오) 르(르) = 와(와) 의(의) 前(前) 次(次) 語(語) "오(오) 르(르)" 의 分(分) 派(派) 語(語). C. 將(將) = 意(意) 讀(讀) 아(아) = 修(修) 飾(飾) 訓(訓) 語(語) 尾(尾) = 於(於) 의(의) 讀(讀) 法(法) 表(表) 示(示), (또) 是(是) 音(音) 畧(畧) 借(借) 字(字) = 數(數) 於(於) (것) 의(의) 精(精) 節(節) 表(表) 示(示), (將(將) = 아(아), 做(做) 將(將) 去(去) = 工(工) 夫(夫) 而(而) 가(가) 다, 則(則) 將(將) 來(來) = 興(興) 正(正) 皆(皆) 을(을) 거(거) 스(스) 려(려) 모(모) 다. 朱(朱) 子(子) 語(語) 錄(錄) 解(解). 2. 爾(爾) = 音(音) 借(借) 자(자), 兩(兩) 音(音) = 聖(聖). 5. 7. 達(達) 阿(아) 羅(라), 達(達) 阿(아) = 音(音) 借(借) 現(現) 아(아) = "달" 의(의) 主(主) 語(語) 制(制), 羅(라) = 라 = 돌아(達阿) 의(의) 末(末) 音(音) 節(節) 表(表) 示(示), L. 浮(浮) = 音(音) 借(借) 現(現) 浮(浮) 音(音) = 罰(罰), 禮(禮) 投(投) 壘(壘) 無(無) 借(借) 立(立) 無(無) 踰(踰) 言(言) 若(若) 是(是) 者(者) 浮(浮) 小(小) 預(預) 推(推) 浮(浮) 罰(罰) 也(야) = "비" 의(의) 古(古) 語(語) (咸(咸) 北(北) 方(方) 音(音) 借(借) 現(現) 尾(尾) 末(末) 音(音) 節(節) 表(表) 示(示)) C. 去(去) = 訓(訓) 借(借) 現(現) (讀(讀) 善(善) 婆(婆) 即(即) 良(良) 齊(齊) = 普(普) 皆(皆) 迴(迴) 向(向) 歌(歌) "去(去) 齊(齊)" = 主(主) 語(語) 制(制) 助(助) 詞(詞). 2. 慧(혜) 只(적) 只(只) 의(의) 只(只) = 音(音) 畧(畧) 借(借) 자(자) (只(只) 飛(飛) 音(音) = 豆(豆) (豆) > 豆(豆)) = 主(主) 語(語) 制(制) 助(助) 詞(詞) 아(아). 0. 故(故) = 訓(訓) 借(借) 現(現) = 終(終) 止(止) 制(制) 音(音) 尾(尾) 末(末) - 소리(소리) 끝(끝) 迄(迄) 疑(疑) 問(問) 終(終) 止(止) 制(制) 音(音) 尾(尾) 末(末). (故(故) 의(의) 訓(訓) 借(借) 現(現) = "이(이) 런(런) 등(등) 의(의) " 등(등)). 2. 7. 재(재) 마(마) 라(라) "재(재) 마(마) 등(등) 의(의) 變(變) 音(音) = 邪(邪) 鳥(鳥) 音(音) = "나(나) 라(라)" (재(재) 마(마) > 재(재) 마(마) > 재(재) 마(마) > 재(재) 마(마) > 재(재) 마(마))

第二. 彗星歌 新羅第二扶 眞平王代 高祖天師作

1. 舊(理) 東尸汀(叱) 乾連婆矣遊身隱 城(叱) 躬(便) 望(辰) 古
 表音 머리(히) 서스 및(히), 乾連婆의 들오나 잣(히) 을(리) 바라(히)고
 表語 머리 싯 못곳, 乾連婆의 들온 잣을 바라고
 現語 머리 동쪽물가, 乾連婆의 혼들 城을 바라고
 大意 머리 동쪽물가의 '乾連婆神'의 지은遊動하는 城(은屬氣樓)을 바라보고서

2. 倭(理) 叱 軍 置來叱多, 烽 燒 邪隱邊也 蔽耶
 音 재마리(히) 軍 도와나 다, 수 슬 르 나 굿이수라
 語 재마릿 軍 도왔다, 수 슬은 又 잇우라
 現 倭 軍 또 왔다고, 烽火 사른 邊方 왔이라
 意 (그屬氣樓에 나타난 人馬의 映象을 보고 그것을 倭軍인줄 잘못알고서) 倭軍이 (前에도 가끔 와서 침범하더니 이제) 또 왔다고 (警報의) 烽火를 사른 邊方이 있구나 (屬氣樓가 가까이 나타나서 空中에 있는 것으로 바라보이면 그것을 實物로 錯覺할 까닭이 없지마는 屬氣樓가 멀리 地平線 위에 나타난 까닭에 그것을 地上에 있는 實物의 人馬로 잘못 안 것이다)

3. 三花矣岳(音) 見賜屋尸聞古 月置八切 爾數於(將)來叱波衣
 音 세 곧 의 오르 (으) 보스오리 듣고, 달도 불갓스 잣아(아) 오스바위
 語 세 곧 의 오르 보스을 듣고, 달도 불갓? 잣아 옷 바위
 現 세 國仙의 山 보심을 듣고 달도 발갓? 잣아 온 터에
 意 (그리고 또 方今) 세분 國仙의 山 보심(은 木風岳스 경하심)을 듣고 (그들을 爲하여 길을 비추어 주려고) 달도 발갓? 잣아 온 터에

第三. 風 謠 新羅第二十七世 善德女王代

1 來如 來如 來如, 來如 哀反 多羅
 表音 오 드 오 드 오 드, 오 드 설 의 하라
 表語 오다 오다 오다, 오다 서리 하라
 現語 왔다 왔다 왔다, 왔다 때서리 많아라
 大意 왔다 왔다 왔다 (아!) 왔다 (우리의) 때서리 많기도 하여라!

2 哀反 多矣 徒良, 功德 修(미) 〇 良 來如
 音 설 의 하 〇 의 버아, 功德 닷 (시) 〇 라 오 드
 語 서리 한 의 버아, 功德 닷 으라 오다
 現 때서리 많은 우리야, 功德 닷 으러 왔다
 意 때서리 많은 우리야 (우리가 무엇하러 왔는가 하면 塑像하는 일이 힘껏 마음껏 助力하여 부처님께) 功德 닷 으러 온 것이다 (자! 熱心으로 일하자)

畧註. 〇=省異字補入, ()=讀法表示.

1. 丁 哀=해(借)설, 反=해(드)비의 畧借이. 서리=서리(“푸서리, 덩부서리”의 “서리”=音韻歌 狄人 서리의 “서리”=群衆體)의 前次語. 反을 音畧借으로 보아 哀反을 “서문”으로 읽어도 可하거 그것은 “서리”의 原語가 “서문”으로 서(이)가 “서문, 서문”으로 分化되고 “서문”이 다시 “서림, 서리로 分化될 可하

第四 願 往 生 歌 新羅第三十世 文武王代 廣德妻作

1 月下 伊底亦, 西方 念丁 去 賜里(叱) 遣
 表音 들 하 이 디(이), 西 方 더 드 가 사 리 (시) 고
 表語 들 하 인 의, 西 方 더 더 가 사 리 고
 現語 달 아 이 끼, 西 方 거 러 가 시 리 고

大意 달아 지금 (그대는) 西方(淨土)를 거쳐서 가실 것인가?

2. 無量壽佛前乃 懺悔(古音 多可支) 白遣賜立

音 無量壽佛 앞애 돈(-)고 무가(가) 슬고 스이

語 無量壽佛 앞애 느낌 닳아 슬고 스이

現 無量壽佛 앞애 느낌 가져다 사리 사이자

意 (만일 西方을 거쳐가신다면 거기 제신) 無量壽佛 앞애 (나의) 느낌

(은 懺悔)를 가져다가 (좀) 사립시다 (은, 사뢰어 주시오)

3. 誓(音) 深 史隱 尊衣(佛) 仰支. 兩手集刀花平白良

音 다짐(집) 스니 尊의 (1) 울어, 두손 모도 꽃오 슬아

語 다짐 집 스 尊의 울어 두손 모오 꽃오 슬아

現 盟誓 깊으신 世尊께 우러러 두손 모아 고노와

意 (다시 자세히 부락하노 이 버가) "(衆生을 濟渡하시려는) 誓願 같으

신 (無量壽佛) 世尊께 우러러서 두손을 모아 고노압고서 (은, 두

손을 모아 곧추 세우압고서)

4. 願往生 願往生, 慕人有如 白遣賜立

音 願往生 願往生, 그릴이 잇다 슬고 스이

語 願往生 願往生, 그릴이 잇다 슬고 스이

現 게가 태 나고져, 그릴이 잇다 사뢰사이다

意 (그 淨土에) 가서 타여고져 (거기에는) 그리노이가 있음이다 (그런대고)

사립시다 (은 사뢰어 주시오)

5. 阿那 此身遺也 置遣 四十八大願 成遣賜去

音 아라 이몸 길여 도고 四十八大願 일고 스이 去

語 아라 이몸 길여 도고 四十八大願 일고 슬가

現 아! 이몸 길여 두고 四十八大願 이루살까?

意 아! (나의) 그리노이, 廣德도! (그러자) 이몸은 (여기에) 길여 두고 (당신만)

(혼자가 있으리서) 四十八大願을 이룰 수 있으살까? (아니 될 것이오)

어서 나도 다녀가시오)

畧註

1. 念=音^念의 畧借^念·다, 丁=音^丁의 畧借^丁. 念丁=거과
의 前次語^{念丁}·더더의 借記(同年春秋冬念丁今冬石練已畢為
內訓=同年春秋冬더더(거과) 今冬石練已畢이며 (淨樂寺五層
塔造戒所止記])
2. 7. 陷의 古音=도.
3. 白良=슬아=恭待接尾語^{白良}·슬음의 前次語.

第五. 慕竹旨郎歌 新羅第三=世孝昭王代得鳥谷作

1. 去隱春皆理米 毛冬居叱沙哭(屋尸)以憂(音)
表音 너너 봄 두 리 미, 모 도 슬(리)스 울 (오리)어 시름(음)
表語 너엔 봄 들 임 미, 몬 슬 스 울 어 시름
現語 지난 봄 달림에, 몬 사릴사 우련어 시름
大意 지난 봄에 (비가 이리로) 달려올래 (이쳐 郎께) 아되지 못할사(근
據曰. 毛冬居叱沙未暇告辭於郎 그대리)(그로 因하여 郎께) 우련어 사
름(겨쳐었나이다).
2. 阿冬音乃叱好支賜鳥隱 自史年數就音隨支行齊
音 아冬音 나리 도? 소오 나, 五八히 잣조口디우 비든
語 아冬音 날 도? 소오, 지시히 잣오. 디어 녀든
現 어찌면 날 사랑하시오셔는 지난해 자조 내려오셔는?
意 어찌면 (이 부족한) 나를 사랑하시오셔는 지난해에 (舌辭이바 슬이라 가자)라
가꿈 下臨하시든 것일까?
3. (缺. 노래의 形으로 보나 뜻의 連絡으로 보나 여기 一句의 缺이 있음)

4. 目煙迴於尸七史伊依逢鳥支(懸)知作乎下是
 表音 눈이 돌아온 줄 소, (인) 맞오우 (아) 더 줄오 리
 表語 눈에 돌아온 줄인 맞오아 더 줄올이
 親語 눈에 도는 양에 만나아 작사오라?
 大意 눈에 (양양하게) 떠도는(곧, 어리는) (郎의 高擡한) 양자에 만나지
 게 되올까?

5. 郎也, 慕(理)尸心(亦)行乎尸道(尸)蓬(次)比蓬中窟(夜(音)窟(地)下是
 音 슨여!, 그리(의)리 맘(의)녀오리 길(리) 다불(지)스 물에 작(의) 밤(의) 및(의) 물이
 語 슨여! 그럴 맘 녀올 길, 다불스 물에 잘 밤 잇을 이
 現 선이여! 그러는 맘에 가올 길은, 다불스 물에 잘 밤도 잇으리
 意 대말선이여! (당신올) 그러는 (간절한) 마음에 (어렵고 험한) 것을
 가리지 않고 찾아서 가는 (나의) 길은 (가다가 날이 저물면 거침) 다불스
 (유거진) 물에이여 자는 밤도 잇을 것이외다

畧註

1. 7. 居=割借 尊=翁의 前次語, L. 以=意讀 어=修辭例語尾 =
 '將從大人以名成乎, 將從富貴以偷生乎(屈原卜居)' 의 '以'.
2. 7. 自=割借 尊=지나=의 前次語 '자'의 表記, 지=辭松
 江 理歌 "모스일 날우리 심먼 지이 너물추장"의 "지", L. 蓬=割讀 디=垂
 키 뜻, 匱=音借 尊=不究全名詞 = '것'의 前次語, 匱의 表音 =
 豆(翻) > 면(前) > 데 > 제 > 제.
4. 7. 七史伊依는 音借 尊=自의 割=逢鳥의 目的語 史伊=七의 末音
 表示及上場所制助詞인, 依=音借 尊=史伊의 高擡 表示,
 七史伊依를 '곳이'로 읽지 않으면 逢鳥의 目的語가 없음
 匱, 蓬=割讀 尊, 乎=音借 尊=恭待 尊尾語, 蓬의 割=맞=맞의

選擇하여 보버는 꽃(仙, 仙)아 너는

2. 直等心(箇)矣命(使)以惡(只), 彌勒座主陪立羅
 音 끈듯 맘(의)의 命(人) 불어(에)아 (의). 머르 조님 보스라
 語 끈은 맘의 命(人) 불어아 머르 손님 맞스라
 理 끈은 마음으로 命 불리어 멀리 國仙 맞을새라
 意 끈은 마음으로(이제여거서시키는) 命(에) 불리어(은使役되어) 멀리
 (하사라도)(消災安邦할) 國仙님, 맞아 올 것이다.

畧註

1. 7. 散花는 "彌勒仙花"와 같은 "仙花"의 同音借記로서 그 뜻은 花仙(관선) 끈, 國仙이요, 字義에르 "꽃을 뿌리는 것"은 아나, 그것은 三國遺事本歌奈의 "今俗謂此為散花歌誤矣, 宜云兜率歌, 別有散花歌, 文多不載", "臣僧但屬於國仙之徒, 只解鄉歌, 不聞梵聲" 등으로 보아 이 "散花"가 佛敎의 散花가 아님이 분명하다. L. 唱=訓借불, 良=音借라, 불라=불러=부르러=잡하리. C. 巴=音借바=佻(選擇)의 前次語. 譯詩 "挑送"의 挑(어딘後宮을뻐 子慶 보심을 勸令인디. 仁顯王后傳. 挑, 今揀選人物, 亦謂之挑. 一原出字映) 已. 寔=音借 寔="보버"의 前次語=譯詩 "挑送"의 "送". (보버=보(보別)+버(出), 맞나=맞(迎合)+나(進)) 室의 古音=뵤(古室 哩=古巴里, 室(徒)=실(川))

2. 7. 彌勒=音借 머르=멀이=멀리. L. 座=音借 座, 主=訓借 님, 조님=손님=仙님=鷄林類事 "士曰進"의 "進"=高麗史辛毗條의 "又林門坐座主"의 "座主"=선님(兩班老人의 林, 實은生 後남이 아니라 선님에서 온 것) C. 陪=音借 陪=맞=譯詩 "遠 邀"의 "邀". 立=訓借 立=子寔全代名詞의 맞스라= 맞을 것이다.

第九. 祭七妹歌 新羅第三十五世 景德王 用明師作

1. 生死路隱. 此矣有阿未 次膠伊 ④ 遣
 表音 죽슬 길 은, 이의 잇 아미 앓 올 이 ④ 고
 表義 죽슬 길은, 이의 잇 음 어질 잇고
 現義 죽살이 길은, 이에 잇 음 어찌릿고
 大意 죽고 사는 公道는 (구구나免하지 못하게 되어) 이세상에 잇 으매 어찌할 수 있느냐(그러니까 그녀의 죽은 것을 원망할 수는 없다

2. 吾隱去內如 辭(此)都. 毛如云 遣去內 尼叱古
 音 나스 가 누 두 말(리)도, 모도 내고 가 누 너스 고
 語 나스 가 누 다 말도, 몬 내고 가 누 잇고
 現 나스 갑니다 말도, 못 이르고 가 누 잇고
 意 (그러나 이세상을 떠날 때에 취) "나는 가나이다"(하는) 말도 못이르고 가느냐? (하도 설고 안타까워 이런 怨望이 나온다)

3. 於內秋(寒) 早隱風(未). 此矣彼矣 浮良落尸 葉如
 音 어 누 갈(질) 일은 부름(미), 이위 더위 더 리 디 리 납 듯
 語 어 누 갈 일은 부름, 이위 더위 덜덜 납듯
 現 어느 가을 이른 바람, 이에 저에 떨어진 잎처럼
 意 (마차)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 저기 떨어지는 잎사귀처럼

4. 一等隱枝 ④ 出. 去奴 惡處 毛冬우 ④ 丁
 音 하나(하)나 깎아 나고, 가노 - 못 모도 모 노 둔
 語 하나한 깎아 나고 가노 못 물문 문
 現 하나인 가지에 나고 가는 못 모르면가?
 意 (그렇게) 한가지에서 (몸, 한곳에서) 나고서도 가는 못도

서로 모르는 것인가?

5. 阿也, 彌陀刹(彌)逢乎.. 吾道修良 待(是)古如
 音 아 라 彌陀刹(彌)에 맞오.. 내 길 닷아 기다리(는) 고드
 語 아라 彌陀刹(彌)에 맞오.. 내 길 닷아 기다리고다
 現 아아! 彌陀刹(彌)에 만나올까? 내길 닷아 기다리오라
 意 아! (아무리 싫어한들 쓸데 있는가?) (이제는 그때가 가오는) -
 彌陀刹(은, 極樂淨土)에 (가서나 서로) 만나볼까? (아모
 쥌룩 나도 그리로 가서 서로 만나게 되도록) 나의 길이나
 닷아서 기다리기 바라노라

畧註: () = 어음表示 = 聲音調和에 따른 다음 말의發音表示.

1. 7. 次 彤伊(次)遣, 次 = 訓借(아찬 아들, 앗어미)의(앞)
 彤伊(次)遣 = 音借 "올이시고", 앗을있고 = "아스릿고"의 表記 = "어찌
 릇고"의 前次語.

4. 7. 枝良의良 = 良中の畧.

解本制

5. 逢乎 = 맞오 (見 蓬竹音師注 4-2). 逢乎의 아래에 語尾를 表示
 하는 文字가 漏落된 것은 語意上으로 보아 分明하다. 그러나 이것은
 文字의 漏落으로 보는 것보다는 말이 어찌 미처매 목이 매어 말
 끝을 마마르지 못하여 빚춘 것으로 보는 것이 더 意味 있을 것이라

第十. 讀耆婆郎歌 新編第三十五卷景德式 忠談師作

1. 咽鳴爾處米露曉新隱月(隱) 咽(咽)白雲(白) 逐于浮去隱安支下
 表音. 을오스즈미난불라노달(리)(리)흰구름(白) 돛오 더가노안드아
 表語. 울물 음 난불으 달, 흰 구름 돛오 더간 안드아
 現續. 우릴은 음 나라나 밝은달아, 흰 구름 돛아 떠가는데 어디냐
 大燄(우연히 하늘을)우릴이 불 짐에 (바람 구름 떨기에서) 나라나 밝은
 (리) 달아, 흰 구름을 돛아서 (너의) 더가는 곳이 어디냐?

2. 沙是八陵(德)河經(也)中. 蒼郎矣負史是史藪邪
 音 소 이 부 언 (나) 나 리 (의) 川 에 蒼 소 리 矣 소 이 八 수 라
 語 시 부 른 나 리 에, 蒼 소 의 矣 아 잇 우 라
 現 새 파 관 냇 물 에, 蒼 소 의 양 자 가 있 어 라
 意 (그와 같이 달을 치어다 보며 하름없는 생각을 달리다가 偶然히 다시
 앞을 굽어 보니) 새파란 냇물에 (비친 맑은 달이 마치 淸風明月
 과 같이 高潔한) 蒼蒼郎의 얼굴처럼 보인다

3. 遼島(隱)川(理)水磧(懸)希, [노래의 형식이나 뜻으로 보아서]
 音 을 오 나 리 (리) 사 磧 懸 希, [여기에 빠진 句節이 있음
 語 을 온 나 리 磧 애, []
 現 어 린 냇 작 별 에 []
 意 (그리하여) 달 어린 냇작별에 [어린듯 홀로 서서]

4. 郎也持(以)支(如)賜鳥隱, 心(術)際(以)躬(逐)內(良)齊
 音 소 여 디 에 (이) 지 (의) 소 오 나, 마음 (의) 또 (의) 을 뜻 는 아 드
 語 소 여 디 에 소 온, 마음 뜻을 뜻 는 아 드
 現 郎 이 어! 지 나 시 다 온 마음 가 를 다 르 어 디 오
 意 郎 이 어! (지금 나의 마음은 당신이) 지 나 고 계 신 (저 말 같이 高潔
 한 그) 마음의 언저리를 따라가는 것이외다

5. 下(可)郎, 栢(也)水枝次高(支)好, 霜(是)毛冬乃(乎)尸(花)判(也)
 音 아 라, 잣 (의) 사 깃 조 높 으 오, 설 이 모 드 는 오 리 꽃 판 여
 語 아 라, 잣 사 깃 아 높 으 오 서 리 문 는 을 꽃 판 한 여
 現 아 아! 잣 가지 높 으 오 서 리 모 를 圖仙 이 어
 意 아! (蒼郎의 氣像은) 잣 나무 같 높은 바로 그것이오 (잣 나무
 가지가 사철 靑靑하여) 서 리 를 모 르 듯 (그렇게 高潔한) 花郎 이 어!

意 (臣下에게 命令하기를) "갈릴 땅을 내어 (生活하고) 전일만
물건을 내어 이百姓을 먹이어 다스리어라." (臣下가 臣下로 行하다)

4. 此地所捨遺只於冬是去於 丁爲尸知國惡中支(支)知古如

音 이 다 흘 버리고도 어드 이 너 도, 드, 스, 드 불 알 의 거 디 어 (이) 다 고 드

語 이 다 흘 버리고다 어디 나 언 도 두 살 불 의 견 디 어 디 고 다

現 이 땅을 버리고재! 어디에 가는것? 사랑하는 나라에 견디어 지사이다

意 (임금이 그처럼 百姓을 사랑하니까 百姓들은 생각하기를 우라)

"이 땅을 버리고저하=냐? (그러면) 어디에 갈것인가? (아모래도 이
보다 나은 데는 없을 것이다 그런즉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는 이
나라에 (갈이) 있어지사이다" (하는 것이야)

5. 後句, 君如 臣多支 民(隱)如 爲內尸等(焉) 國惡太平惟 音如如

音 아라, 君도 臣도 드 민 (니) 도 호 느 스 든 (니) 불 아 태 평 호 르 고 드

語 아라, 君도 臣도 민도 호 느 스 든, 불 아 태 평 호 르 고 드

現 아아! 임금다히 臣下다히 百姓다히 하얏다면, 나라가 태평함을지라

意 아! (이와 같이) 임금답게 臣下답게 百姓답게 (위와 아래가各自的

할 일을) 할 것 같으면 나라가 태평하을 것이다

畧言主

3. 7. 窟理=音借 글리=갈리(耕)의 借記(窟區乙切) L. 支所,

支=訓讀 견드="견디"의 前次語, 所=翻借 드="견드"의 讀法表

L. 食惡=먹이="먹이"의 前次語=龍歌 "나라小民을 사르시리잇가"의 "사르"

4. 7. 爲尸知, 爲=訓讀 뉘의 畧借 드, 尸=音借 스, 知=音畧

借 드, 드 스=드문=發聲, L. 支持=前條 L. 國=

訓讀 불="나라"의 前次語=徐羅伐의 伐, 推火의 火.

第十二. 千手觀音歌 第三十五世 景德王 希明女人作

1. 膝肘古召株 = (尸)掌 (高) 毛乎支內良
 表音 무릎 을 고도며, 두벌 (시) 손바닥 (회) 모호아 안아
 表語 무릎 을 곧으며 두벌 손바닥 모호아 안아
 現語 무릎 을 고치며 두 손바닥 모와 안아
 大意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무릎을 고치어 꿇으며 두손뼉을 한데 모와 안(회)과

2. 千手觀音比前窟中, 所以(支)白屋尸置內乎多
 音 千手觀音시 앞(回)애, 빌어(회)슬오르도노오 두
 語 千手觀音시 앞애, 빌어 슬을 도노오다
 現 千手觀音시 앞에 빌어 사림 두나이다
 意 (그러한 정성스러운 몸가짐으로) 千手觀音앞에 (나의 願을) 빌어 아뢰를 두옵나이다

3. 千(隱)手(隱)比千(隱)目(隱)睛, 一(等)下(下)枝, 一(等)肘(肘)除(除)聲(支)
 音 즈문 (시) 손시 즘문 (시) 눈을, 하나 (사)하리 노향, 하나 (사)홀 덜어 (회)
 語 즈문 손시 즘문 눈을, 하나홀 노향, 하나홀 덜어
 現 천 손 천 눈을, 하나를 놓아, 하나를 덜어
 意 (빌어사리는 말이, 觀音님! 당신의 그) 千에서 되는 손과 千이4 되는 눈을 (그 중에서) (시) 하나를 버놓고 (회) 하나를 덜어시

4. 二于(隱)萬(隱)吾羅, 一(等)沙(隱)隱賜以古只(只)內乎(只)等(只)耶
 音 두벌 가문 (시) 나리, 하나 (사)스니 주어 고드노오르 두라
 語 두벌 가문 날, 하나 손 주어 곧으늘 두라
 現 둘 까만 나를, 하나만 주어 고치을 지라
 意 (그러하여) 두눈이 까잠한 나를 하나만 주어 고치을 것이되다

5. 阿那(他) 吾良適(知)支賜尸等(焉) 放冬笑用屋尸慈悲也根古
 音 아라(라) 나그기(기) 주사(사) 노후(후) 쓰오(오) 慈悲어 근고
 讀 아라 날 길어 주사(사) 노후(후) 쓰오 慈悲어 근고
 解 아아! 나를 길어 주시면 돌음에 쓰오 慈悲어 크오
 意 아! (만일 그와 같이 그 貴重한 눈을) 나를 길어 주시면 (비록 눈
 을 놓으시기는 좋았지만 그 눈물) 놓으신 데에 쓰오 慈悲어! 크
 기도 큰지고!

畧註

1. 古音 = 音借 고도 = 고차의 前次語 "골"의 雅語形. 古音 = 本歌
 의 古音. 廣雅從義歌의 直體. 音의 前次音 = 道 (只石夫人一作息道夫人.
 石. 從口刀聲)

2. 7 白屋尸 白 = 割讀 舍. 屋 = 音略 借오.尸 = 2. "슬을" = "얼"의
 目的制. -오 = 名詞 糊 撥尾 詞 "미"의 前次形.

3. 7 一等의 等 = 割 네 (紐)의 前次語 "나"의 異借 "나" = 一
 의 讀法 卷本.

第十三 遇賊歌 第三十八代 元聖王代 永才師作

1 自矣心(米) 貞(使)毛達只(將)來吞(隱)日遠鳥
 音 러의 마음(미) 죽(사) 모던(아) 오던(나) 날 멀오
 表語 러의 마음. 죽 몰아 오던 날 멀오
 理解 러의 마음. 끌 몰라 오던 날 멀오
 大意 러의 마음의 (善良한 本然의) 모양을 모르거 (그대로 지나)
 是 날아 멀오 끝. 오래오

2. 逸鳥隱過出知遣 今吞藪未去道省如

音 을 오 나 허를 내 다 고 인 든 수 닷 가 고 스 닷

語 을 온 허를 내 어 고 인 은 숨 어 가 고 스 닷

現 어린 허를 내 처 고 이 켜 숨 어 가 는 터 요

意 (그런 출을 깨달았으니 이왕에) 어린 (은, 迷亂) (모든) 허를을 (다 털어) 버
치고 이 켜는 (道를 닦으러) 갈숙한 山中으로 숨어 가는 것이요

3. 但非半隱(焉)破戒(主)次弗(圖)史內於(翻)還於(所)顯(也)

音 단 비 오 나 (-) 破戒主, 스 불 죽 스 눈 에 도 돌아 리 라 (라)

語 단 비 온 破戒主, 스 불 죽 아 눈 에 돌아 라

現 뒤집힌 破戒主, 무거운 팔이 눈에 돌아 라

意 (이렇게 懺悔하고 나니까 이왕에 道에 背反되는 이나의 破戒
主(은, 破戒의 邪心)의 可恐할 (過去 罪惡의) 모양이 (앞에 現
在 보이는 듯) 눈에 멍멍 도는 구려

4. 此兵物(也)沙過乎(○) 好尸日沙也(內)乎吞尼

音 이 불 들 (도) 몰 가 오 (○) 도 흐 리 돈 몰 가 (니) 오 둔 니

語 이 불 든 몰 가 온 도 흐 리 돈 몰 가 오 둔 니

現 이 낱알 모르오나 종을 날 모르던 것

意 (지금 나는) 이 (懺悔의 슬픔) 밖에는 (아모것도) 모르며 (마음)
종을 圖 날을 (全然) 보르는 것. 四

5. 阿耶 惟(知)伊(吾) 痛(之) 此(恨) 隱(善) 隱(安) 支(尚) 熾(都) 乎(隱) 以(多)

音 아 라, 오스(○) 이 바 온 이 사 恨 은, 스 른 온 만 드 스 터 (도) 오 노 니 라

語 아 라, 오스 이 바 있 恨 은 스 른 온 만 드 스 터 도 몬 이 라

現 아! 오직 이 버 恨 은 사랑 은 어디 상기 두 몬 이 다

意 (지금) 오직 나의 사랑은 (나는 이제까지 罪惡만 지어 오고 나의 天賦의
良心인) 사랑 (은, 慈悲) 은 어디다가 상기까지 두고 있는가 (하느) 그 것이냐

意 (물어와 房에) 들어서야 (자려고) 자리를 보즉 (자기의 안해가
뺀은 다리 둘 막에 없을 터인데 慮外에도) 다리가 넷이어라

3 二(躬)隱 吾下於此古. 二(躬)隱 誰支下焉古

音 두블(㉔)은 내하어시고, 두블(㉔)은 누의 하연고
語 두블은 배해엇고, 두블은 누의 배연고
現 둘은 배해이고, 둘은 누의 해고

意 (아! 이상하다) 둘(곧두발)은 배(안해의)해고(그리고 그 밖의)
둘(곧두발)은 누구의 해고?

4 本矣吾下是如馬於隱. 奪(此)良乙何如為理古

音 본 의 배하(ㄷ) 물어(ㄴ), 앓(ㅅ)안을 연(ㄷ)호리고
語 본의 배해(ㄷ) 말은, 앓(ㅅ)안을 연(ㄷ)호리고
現 본디 배해다 마는, 배앓음을 어찌하랴고

意 (배안해의 발밖의 다른 두 발도) 본디는 (그렇게 동이 없던
것이, 그렇게 있어 할 것이) 배발이었을까(그러나 이찌
그러한 處地를 어떤 者가) 배앓은 것을 어찌할 수 있
으리운(이왕 그리 되었으니 내가 참고 피할 수 밖이 없나

畧言註

2. 7. 胫烏伊. 胫=訓讀러되 = "허퇴"의 前次
語. 烏伊=音借오이=胫의 讀法表示.

L. 四=訓讀맛=넷의 前次語

1. 7. 期=音"기"의 畧借은. (期=幾=近. 詩楚茨傳.
幾期. 爾雅釋詁. 幾近也.) (期=勤. 射義의
"耄期秋道不亂者" = 詩什葦毛傳의 "耄勤禾道不
亂者")

第十五 禮敬諸佛歌 羅漢初均如師 作
以下同

1. 心(木) 筆(㉔) 留(留) 白乎隱 佛(體) 前衣
 表音. ㅁㅎ(ㅁ) ㅁ㉔(㉔) 로, ㄱ리(리) 슬오ㄴ 불티(티) 압미
 表義. ㅁㅎㅁ 불으로, ㄱ리 슬오 불티 압미
 現義. ㅁㅎㅁ 불으로, ㄱ리사온 부처 앞에
 大意. (ㅁㅎㅁ이 불인 양으로 ㄱ) ㅁㅎㅁ의 불으로 (ㄱ림 ㄱ리ㅅ) ㄱ리ㅅ(ㄱ)
 부처 앞에

2. 拜內乎隱 身篇(隱) 法界 毛也 所只 至去良
 音. ㄱㄴㅅ오ㄴ 몸은(ㄴ) 법기 ㅁㄷ 바ㄷ 나드아라
 語. ㄱㄴㅅ온 몸은 , 법기 ㅁㄷ 받 나드아라
 現. ㄱㄴ하는 몸은 , 법계 맞는데 이르러라
 意. ㄱㄴ하는(이) 몸은 法界(은宇宙) 끝맞는 바닥(은場所)까지 이르
 러라

3. 塵塵馬洛(佛體) 叱亦, 刹刹每如邊(黑) 白乎隱
 音. 塵塵 ㅁㄴㄴ 불티(티) ㅁ 刹刹 ㅁㅁ 드리(리) 슬오ㄴ
 語. 塵塵 ㅁㄴㄴ 불티 刹刹, 刹刹 ㅁㅁ 드리(리) 슬오
 現. 塵塵 ㅁㅁ 부처 刹이 刹刹ㅁㅁ 드리사온
 意. (數 많은 世界를 微塵에 비한다면 그 無數한) 微塵 微塵(은
 世界 世界)의 끝맞는 데 ㅁ 부처 刹(은 國土)에, (ㄱ) 刹刹ㅁ
 ㅁ 드리사온(은 下臨하사온)

4. 法界 滿賜德佛(體) 九世 盡良禮為白齊
 音. 法界 ㅁㅁㄴ 불티(티), 九世 다아 禮ㅁㅁ 슬ㄴ
 語. 法界 ㅁㅁ 불티, 九世 다아 禮ㅁㅁ 슬ㄴ
 現. 法界 ㅁㅁ 부처, 九世 다해 禮하을 것

第十六. 稱讚如來歌

1. 今日(部) 伊冬衣, 南无佛也 白孫 舌良衣
 表音 오논 (디) 이드미, 南无佛여 슬문 흘(은)의
 表語 오논 이드미, 南无佛여 슬문 흘의
 現語 오논 이 마당에, 南无佛이여 푸른 혀이
 大意 오논 이 마당(이 자리)에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이여 하고
 사되는 (나의) 혀이

2. 无尽辯才如 海(譬), 一念(惡)中 涌出去良
 音 无尽辯才 바다(의) 일념(惡)에 솟나아라
 語 无尽辯才 바다 일념에 솟나아라
 現 無盡辯才 바다 일념에 솟나아라
 意 無盡한 말솜씨의 바다(은생)가一念(은 한번 생각하는 동안, 은 頃刻)
 이 솟아 나거라

3. 塵塵(塵物也) 邀(呂) 白乎惡, 功德 比 身乙 對為白惡(只)
 音 塵塵 받든 (디) 드리 (리) 슬문 功德 人 몸을 對하 슬아 (의)
 語 塵塵 받든 드리 슬문 功德 人 몸을 對하 슬아
 現 塵塵 받겠 드리사문 功德 몸을 對하 사와
 意 (無數한 世界를 微塵에 比하 4면 그 無數한) 微塵(微塵(은 世
 界世界)의 끝맛는데 까지 드리사문(은 下臨하 4문)(부처님의)功
 德 몸을 對하와

4. 際于萬德海躬 問王冬留 讚伊白制
 音 又 가문 덕 마들 2 슬문 드로 기리(이)슬든
 語 又 가문 덕 마들 슬문 드로 기리 슬든
 現 갓 까만 덕 마들을 사방(은) 제로 기리올 것

(2 부처님의) 가이 까만 (남고 남리) 功德의 마바를 (神歌를 부르는) 사당(곧 무당)의 (2) 대로(곧 그제로) 기리물 것이다.
 隔句 必只 一毛此 德置 毛等 盡良 白乎 德乃兮
 (아라) 빌으 一毛入 德도, 모드 다아 슬오 나여
 아라! 빌으 一毛入 德도, 못 다아 슬오 나여
 아아! 비록 一毛入 德도, 못 다하여 사된 나여
 아! 비록 한털끝만한 (부처님의) (작은) 德까지라도 다하
 여 사되지 못한 (이 無誠 풀라고 無能한) 나여!

畧註 ○ 안엇것=마음義和 母音調和에 여르는
 다음 말의 發音表天 例 良中 애, 弄中 =이, 中中 =에.

1. 今日=意讀 오느. 昏=訓“데(테)”의 前次語 들의 畧借.
 L. 舌=訓讀 呼 “혀”의 前次語.
2. 海=訓讀 바닷. L. 一念=音讀 일남. 念의 前次音=남.
 E. 舌=訓借 아 “가”의 前次語.
3. 度=訓借 本 “취”의 前次語. 物=訓借 本 “것”의 前次語.
 本=본의 借記=맛, 돈=끝의 前次語. L. 只=音畧 “지”,
 只의 原音=“돈” > 디 > 디 > 지.
4. 于=訓借 가, 萬=音借 온. L. 間=訓借 손, 王=音借 오.
 손오 = 사당 = 무당의 原語 = 慈亮 E. 冬留 = “도로”의 借記,
 도로 = “도로”의 前次語 = 취럼, 列로, 격으로. 2. 制=音借 돈,
 制의 原音=돈 > 열(열) > 데 > 제 = (濟의 借記)
5. 必只 = “빌으”의 借記 = “비록”의 前次語.

第十七、廣修供養歌

1. 火箸 執音馬, 佛前燈 乙 直體良(獨)多衣
 表音 브저 잡 음 물 불 선 등 을 피역 (제) 안 (이) 뒤인
 表語 브저 잡 음 말 불 선 등 을 곧이 안 뒤이
 現語 부저 잡은 말 불 선 등 을 고된 日 터어
 大意 부저가 락을 잡고서 한 말이 (法供하기 위하여) 佛前의 燈을

고친 터어 (은.경우에 마땅에, 고치거든)

2. 燈炷隱 須彌也, 燈油隱 大海 逸(留)去耶
 音 燈炷는 須彌어, 燈油는 大海 일(리)아라
 語 燈炷는 須彌어, 燈油는 大海 일아라
 現 燈炷는 須彌어, 燈油는 大海 되어라
 意 (2) 燈의 심지는 (大光明을 쫓갈 수 있도록) 須彌山만하게 될
 것이어! 燈油는 (限量 做어 온) 大海가 되어라

3. 手焉 法界 毛吐 色只 為旃, 手 每如 法比 供乙 留
 音 손은 法界 마디 바디 ㅎ여 손애마다 法人供으로
 語 손은 法界 문 반 하여 손애마다 法人供으로
 現 손은 法界 끝까지 잡고 손애마다 法供으로
 意 손은 (極微塵數의) 法界 끝맞는 데까지 맡아지고 (2)
 손애마다 (잡은) 法供으로

4. 法界滿 賜仁 佛佛, 佛佛周物(此) 供為白制
 音 法界 마디 마디 불티, 불불 마디 (나) 供을 살둔
 語 法界 마디 손 불티, 불불 마디 供을 살둔
 現 法界 차신 부처 부처 보자 供하물 것
 意 (極微塵數의) 法界에 차신 부처, (2) 부처 부처께

모다 供하을 것이나.

5. 阿耶 法供 沙(比) 多奈. 伊於衣波 最勝供也
 音 아라 法供 몬(디) 하나 이 어위바 最勝供여
 語 아라 法供 몬 하나 이 어위바 最勝供여
 現 아야! 法供 모래 많으나 이 어위버 最勝供여
 (法供 數 없으나 이것 넘어 천대 供養)
 意 아! 法供은(恒河沙)모래처럼 많으나 (燈으로 하는)이 (法供
 의 功德이) (크고) 넘어서 가장 좋은 供養이다

畧註

4. 7. 周物 = 音借 多^다 = 도모지의 前次語 = 모다.
 5. 7. 沙 = 訓讀 = 몬 = "모래"의 原語 = 恒河沙.
 L. 於衣波 = "어위버"의 前次語 "어위바"의 借記.
 어위 = 濶의 聲. 버 = 形容詞性 接尾語 "브(깃브, 민브
 의 브)"의 修飾制.

第十八. 懺悔業障歌

1. 顛倒逸那, 菩提向焉道乙迷波
 表音 顛倒 일라, 菩提 안은 길을 입바
 表語 顛倒 일아, 菩提 안은 길을 입아
 現語 顛倒 되어, 佛道 向한 길을 몰라(얼리어)
 大意 (精神이) 顛倒 되어 (큰 錯亂 되어) 佛道 向하는 길을 (迷亂하여) 몰라서

2. 造將來罪隱惡寸隱, 法界餘(箇)玉(只)出隱伊音如(支)
 音 짓어 오느오느 좃즌(니) 法界 남(의)미(의)나 나 이오르듯(으)
 語 짓어 오느못 좃즌, 法界 남아 난 이몰듯
 現 지어 오온 惡은, 法界 남아 난 것일듯
 意 (그래서 지금까지) 지어온(自己의) 罪惡은 (어찌나 많은지 넘쳐 넘은) 法界에 (가득 차고도) 남아서 (그 밖까지 벗어나) 남 것 일듯

3. 惡寸墮落毋乎隱三業, 淨戒此主留卜以支乃遣只
 音 짓은 버릇디느오느 三業, 淨戒人 초로 진이어 버고드
 語 짓은 버릇 다오느 三業, 淨戒人 초로 지니어 버고드
 現 짓은 버릇 떨어지은 三業, 淨戒人 초로, 지니어 버고드
 意 모진 버릇 다떨어버린(身口意의 깨끗한) 三業을 淨戒人(佛, 깨끗이 戒한) 닳은 心靈의 초로 (늘) 지니어 버고드

4. 今日(部) 頓辭(此) 懺悔, 十方佛(體) 闕遣只 賜立
 音 오느(으) 드븐(은) 懺悔, 十方佛(의) 알고드 스이
 語 오느 드못 懺悔, 十方佛(의) 알고드 스이
 現 오느 모든 懺悔, 十方 부처 아시오 사

意. 오늘 (나의 이) 모든 懺悔를十方에 (제신) (오른) 부처께서 아
시오소서. 삼오미

5. 洛句 衆生界盡我懺盡 來際永良適造物捨齊

音 (아라) 衆生界盡我懺盡 來際갈? 造物 말 든

語 아라 衆生界盡我懺盡 來際갈? 造物 말 든

現 아아! 衆生界盡我懺盡 來際갈이 造物 말 것

意 ㄷ! 人間世界가 다 끝나야 나의 懺悔도 (그때에나) 끝이
... 것인가? (그처럼 나의 懺悔는 끝이 없는 것이니) 앞으로는 갈
길이 (罪되는) 일을 짓지 말 것이다.

畧註

1. 7. 向=訓讀"向"=向하-. L. 迷=訓讀"迷"=迷하-.

2. 7. 將=意讀아 [做將去 공부하여 가다 (朱子語錄講解),
爬將起來 기어 나르나, 鑽將出來 무뎠어 나오다 (水滸
語錄講解)]. L. 出穩伊의 伊=音借이. =不完全代名詞

4. 7. 類部아 = 音借"아" = "아"의 借記, 아 = 吏讀
의 並只 ㅏ모지. 모든.

5. 7. 捨=音借"말", 捨의 古音=舍=말, "舍音=말음.
捨의 音을 近代音"ㅅ"의 前次音"ㅅ"로 보아, "말"의 後次
語"ㅅ"의 借記로 보아도 可함 (ㅅ= 비카오고 새고
間에 떠나 갔다" 하는 그 "ㅅ" = "말"의 後次音)

第十九 隨喜功德歌

1. 迷悟同體也 緣起也 理良 尋只見根
 表音 迷悟同體人 緣起人 理良 變只見根
 表語 迷悟同體人 緣起人 理良 찾아 보곤
 現語 迷悟同體人 緣起人 理를 찾아 보나
 大意 迷衆과 悟聖이 一身同體라는 (佛敎의) 緣起人 理(宇宙
 生成의 理法)를 찾아 보건대

2. 佛(佛)衆生毛也 所只 吾(我)身不喻仁人(音)有(也)下呂
 音 佛의 衆生도 다 마다 我(我) 몸만 다 나 남 (이) 잇(으)리
 語 佛의 衆生은 만 我 몸만 단 남 잇 으리
 現 佛의 衆生 같겠 我 몸만 단 남 잇 으리
 意 (부처님의 넓고 넓은 慈悲心에 나오는 宇宙緣起의 理法으로는
 부처로부터 衆生까지가 (다 一身同體인 것이 어찌) 我 몸
 만 남이 있으랴?

3. 修(修)賜(賜)隱(隱)頻(頻)部(部) 吾(我)修(修)孫(孫)得(得)賜(賜)伊(伊)馬(馬)落(落)人(人)無(無)也(也)昆
 音 닷(스)스런 덕(덕)스 我(我) 닷(스)손(손)을 (스)이 물(물)든 4(四)업(업)스
 語 닷 스런 덕스 我 닷손더, 슬이 본(본)돈(돈)사(사)람(람) 업(업)스
 現 닷을 짓(짓)을(을)람(람)모(모)다 我 쥬(쥬)을(을)적(적), 살(살)이 밖(밖)갈(갈)사(사)람(람) 없(없)게
 意 (그와 같은 넓은 慈悲心을 가지고 모든 부처가 닷은 一切 修(修)한 功(功)德(德),
 그리한) 닷을 짓을(을)람(람)모(모)다 我(我)가(가) (따(따)라) 닷(닷)을(을)지(지)로(로)다(다) (이(이) 번(번)에(에) 修(修)을(을)려(려)
 나(나)서(서) 生(生) 밖(밖)의(의) 사(사)람(람)이(이) 없(없)는(는) 것이(이) (공(공) 사(사)람(람)은(은) 生(生)을(을) 때(때)가(가) 있(있)을(을) 수(수) 없(없)는(는) 것(것))

4. 於(於)內(內)人(人)衣(衣)善(善)陵(陵)等(等)沙(沙) 不(不)冬(冬)喜(喜)好(好)尸(尸)置(置)乎(乎)理(理)也(也)遍(遍)
 音 어(어)는(는) 사(사)람(람) 못(못) 스(스)런(런) 내(내)사(사) 아(아)들(들) 것(것) 오(오)리(리) 두(두)모(모)리(리) 사(사)라(라)
 語 어는 사(사)람(람) 못(못) 스(스)런(런) 내(내)사(사) 안(안)들(들) 것(것)을(을) 두(두)모(모)릿(릿)가(가)
 現 어는 사(사)람(람) 못(못) 사(사)람(람)에(에)야(야) 안(안)들(들) 기(기)쁨(쁨) 두(두)모(모)릿(릿)까(까)?
 (기(기)쁨(쁨) 두(두)지(지)를(을) 압(압)으(으)리(리)까(까)?)

意 (그런즉, 곧, 생을 때에서 사람이 없단즉) 어느 사람이 (萬有一切를 자기와 한 몸으로 생각하도, 부처의 넓고 큰 그) 사랑(문,慈悲,仁)에야 기쁨을 두지를 앎오리까?

5 後(의) 伊羅 擬可行等 嫉妬此心(音) 至刀來去
音 (아라) 이 큰 닷아 너도 嫉妬人 마음(이) 날도리 가
語 아라 이 큰 닷아 너도 嫉妬人 마음 붙을가
現 아아! 이리 닷아 가면 嫉妬 마음 일어날까?
意 아! (부처님의 慈悲心을 본받아 萬有一切를 나와 한 몸으로 생각 하여) 이렇게 닷아 한다면 (남을 미워하고 猜忌하는) 嫉妬心이 일어나겠는가?

畧註

3. 7. 修此賜乙隱. 修=訓讀다, 貝賜=音畧借다=不完全代名詞, 乙=을=目的制助詞, 隱=은=特稱助詞, 을은=으란, L, 得=訓借술(실어의 語幹'실'의 前次語)=생의 訓, 貝賜=音借은(賜=錫=銅)=得의 讀法表示, C, 馬落, 馬=訓借은='말'의 前次語, 落=音借은='떨(길)'의 前次語.

4. 善陵, 善=音借은, 陵=音借은, 公은='公'의 前次語=仁, 慈悲, L, 喜好, 喜=訓讀기, 好=音畧借오, 깃오='깃'의 名詞制='깃음'의 前次語.

5. 7. 擬可行, 擬是=訓借다(=比較의 文'대'의 前次語)=修의 訓, 可=音畧借아=修飾制語尾, L, 至刀來去, 至=訓借년(='나리'의 前次語)=起의 訓, 刀=音借도='날'의 末音表示 및 原形語尾, 來=音畧借이去=訓借가, 可=疑問句終止制語尾.

第二十 請轉法輪歌

1 彼仍反法界(惡)之叱佛會(阿)衣
 結 訃 々 是 法界(惡)의 ㅅ 佛會(아)의
 表語 訃 是은 法界잇 佛會리
 現語 訃 是은 法界잇 佛會에
 大意 訃 是은 眞如界의 (모든) 부처님의 모임에
 2 吾焉頓(也)進良(只) 法雨乙乞白乎叱等耶
 音 나는 문듯(ㅅ) 닳아(이) 法雨을 밭슬오리드라
 語 나는 문듯 닳아 法雨를 밭슬올드라
 現 나는 문듯 나가 法雨를 밭사물지라
 意 (그佛會에) 나는 곧 나가서 (그 부처님들에게 大慈大悲의 法雨를(나려 주십소사고) 비을 것이다 (위하하면)
 3 無明土深以理多煩惱熱留煎將來(出)米
 音 無明土 깊이 묻다 煩惱熱로 짓어 리(배)리
 語 無明土 깊이 묻어 煩惱熱로 짓어 배리
 現 無明土 깊이 묻어 煩惱熱로 지져 배리
 意 (即 良心의 ㅅ악을 慾情의) 無明土로 깊이 묻어 (농고) 煩惱의 熱로 짓조리어 배는 까닭에
 4 善芽毛冬長(乙隱) 衆生叱田乙潤只沙音也
 音 善芽모디 자란(고 은) 衆生ㅅ 밭을 물只스口여
 語 善芽모디 자란 衆生ㅅ 밭을 물只스여
 現 善芽모디 자란 衆生ㅅ 밭을 물구삼이어!
 意 (그良心의) 善의 ㅅ악이 자라지 못한(어리석은)衆生의 (마음)의 밭을 물구실 것이어!(하는 願이로소이어)

5. 後言 菩提^吐策^(音)烏^乙反隱 覺^月明^斤秋^(察)波^(翻)處^也

音 아라. 菩^提入^{열음} (음) 오^리니, 覺^月 불은^말 (음) (2) 바^지여

語 아라. 菩^提入^{열음} 을^인, 覺^月 불은^말 받^여

現 아아! 菩^提 열^음 어^린, 覺^月 밝은^{가을} 받^{이어!}

意 아! (만일 나의 비는대로 慈悲의 法雨로 衆生의 心田을

불어 주신다면 그 자라지 못하던 善芽가 무럭무럭 茂

盛하게 자라서 거기에 善의 果인 菩^提 열매가 주렁주

렁 열릴 것이니 그) 菩^提 열매가 (어른어른) 키친 覺^月

밝은 가을 받^{이어!} (참으로 아름답기도 할 것이외라)

畧註.

- 2. 1. 頓 = 訓讀 문득 = "문득의 前次語."
- 3. 1. 埋 = 訓讀 문, 多 = 音借 다 = "말의 末音表示 및 修飾制語尾 아.
L. 來 = 音借 리 = 完了補助語幹 卮 ("하어씨-보아씨"의 "씨")의 表示, 出 = 訓借 卮 = 來의 讀法表示.
- 4. 1. 長 乙 隱. 長 = 訓讀 자란, 乙 隱 = 2은 = 2은 = 長의 讀法表示.
- 5. 1. 烏 乙 反 隱. 烏 = 音借 오, 乙 = 音借 2, 反 = 訓借 乙의, 隱 = 音借 乙 올인 = 日曠의 訓 "어린"의 前次語 "으린"의 表記.

第二十一. 諸佛柱世歌

1. 皆佛(體)必于化緣盡(動)賜隱乃
 表音 皆 佛(체), 必 于 化緣 盡 (동) 賜 隱 乃
 表語 皆 佛(체), 必 于 化緣 盡 (동) 賜 隱 乃
 現語 皆 佛(체), 必 于 化緣 盡 (동) 賜 隱 乃
 大意 皆 佛(체) 必 于 化緣 盡 (동) 賜 隱 乃
 이 皆 佛(체) 必 于 化緣 盡 (동) 賜 隱 乃

2. 手乙寶非鳴良爾, 世(呂)中止以友白乎(必)等那
 音 손 乙 보 비 오 란 이, 두 리(리) 에 멎 어 변 솔 오 (必) 두 라
 語 손 을 보 비 울 안 이, 두 리 에 멎 어 변 솔 을 두 라
 現 손 을 부 비 어 우 려 옴, 세 상 에 멎 최 벗 하 물 지 라
 意 (제 가) 손 을 부 비 어 (빌 며) 우 려 옴 이 (부 디) 이 세 상 에
 (더) 머 물 리 게 되 서 (불 상 한 衆 생 을) 벗 하 여 수 실 것
 이 외 다

3. 曉(留)朝于萬夜未, 向屋賜尸朋知良闇(尸)也
 音 불 (리) 은 아 잠 가 만 밤 이, 안 오 스 리 변 알 아 스 (必) 라
 語 불 은 아 잠 가 만 밤 이, 안 오 슬 변 알 아 스 라
 現 밝 은 아 침 가 만 밤 에, 향 하 물 벗 알 앓 어 라
 意 (제 가) 밝 은 아 침 이 나 짝 짝 한 밤 이 나 향 하 물 벗
 알 앓 음 으 로 오 이 나 (向 藥 할 벗 은 오 직 부 처 남 분 임 을)

4. 伊知皆矣為末, 道尸迷反群良哀(呂)舌
 音 이 지 皆 矣 為 末, 도 尸 迷 反 群 良 哀 (呂) 舌
 語 이 지 皆 矣 為 末, 도 尸 迷 反 群 良 哀 (呂) 舌
 現 이 지 皆 矣 為 末, 도 尸 迷 反 群 良 哀 (呂) 舌
 意 (向 藥 할 벗 은 오 직 부 처 남 분 임 을) 깨 달 자 藥 처 남 분 임 이

반포에 계실 因緣이 다하여) 이제 맞으막이 되오나 (아찌 부러는 누구를 依拄하오리까!!) 이 길 어린 (은연하) 무리가 (참) 님오오이다

5. 落句. 吾(理) 心(音) 水濟等, 佛影不冬 應為賜下呂
 音 아라. 우리(리) 마음(미) 물물도 佛影 안들 應하사 물리
 證 아라! 우리 마음 물물도 佛影 안들 應하슬 이
 理 아아! 우리 마음 물물이면 佛影 아나 應하시리
 意 아! (부처님은 끝내 이 세상을 떠나서 他世界에 가
 계셔더라도 만일 우리가 부처님을 向慕하고 精誠껏 修行
 하여) 우리의 마음이 물처럼 맑으면 (그 마음의 물에)
 부처님의 (마음의) 그림자가 비취어 應하지 않으시랴!!

畧註

1. 7. 皆=訓讀문="모든"의 前次語(문 2조 法印슈미假14-阿彌陀經.15) L. 盡=訓讀문(佛樣뜻 도라 時로 士30개 흐러 주어 時故=佛樣時故 士子盡 -杜誇迷劉僕 射判官). 動=訓借문("귀"의 前次語)=盡의 讀法表示
2. 7. 鳴良衛=音借우란이="우려"의 前次語
3. 7. 濁尸. 濁=音借大=不完全代名詞, 尸=音借大=濁의 讀法表示. L. 也=意讀라.
4. 7. 伊知=音借이디=인(今의 訓"연"의 前次語)의 場所詞 L. 皆=訓借문, 矣=音借이, 물이=모디=畢竟, 終末

第二十二. 常隨佛學歌

1. 我佛(體)皆往焉世(處)修將來賜留隱

表音 우리 불씨 (되), 몸 나안 뒤(뒤) 닷 아 오 스 로 나

表語 우리 불씨, 몸 나안 뒤. 닷 아 오 스 로

現語 우리 부처, 모든 前世上 닷 아 오 사 온

大意 우리 부처께서 모든 지나간 前世上에서 닷 아 오 사 온 오 사 온

2. 難行苦行此願乙. 吾善願部此逐好友伊音此多

音 難行苦行人 願을 나는 닷 오 빗 오 비 오 리 다

語 難行苦行人 願을 나는 닷 오 빗 오 비 을 닷

現 難行苦行人 願을 나는 모다 좃 아 배 을 것

意 (2) 難行苦行의 願을 나는 모다 (그대로) 좃 아 배 을 것이다

3. 身摩(只)碎良(只)塵伊去米. 命乙施好尸藏史中置

音 몸 마 (으) 밧 아 (으) 드 들 이 아 며, 命 을 뱌 호 (호) 리 사 사 애 도

語 몸 아 밧 아 드 들 이 어 며, 命 을 뱌 흘 솟 애 도

現 몸 이 밧 아 처 뒤 갈 이 거 나, 命 을 배 흘 사 이에 도

意 (비록) 몸이 밧아져 먼지가 되며 生命을 (배 놓아) 布施할 사 이에 도

4. 然(也)皆好尸(下)下里. 皆佛(體)置然(也)為賜留隱伊留

音 그랬 (으) 다 도 사 (으) 을 리, 몸 불씨 (으) 도 그랬 (으) 호 스 나 이 로

語 그랬 다 닷 을 리, 몸 불씨 도 그랬 호 스 나 이 로

現 그리 다 좃 으 리, 모든 부처도 그리 하신 이 데

意 그렇게 다 좃 을 것이다 (過去世의) 모든 부처도 (4) 그렇 기 하신 이 데

5. 城工人 佛道 向隱心下, 他道 不冬斜良(ㄹ)行齊
 音 아라. 佛道 안은 밍슴하 년길 안돌 빗아 (ㄹ)녀둔
 語 아라! 佛道 안은 밍슴하 년길 안돌 빗아 녀둔
 現 아아! 佛道 向한 마음아 단길 아니 빗가물 것
 意 아! 佛道를 向慕하는 (나의) 마음아 (오직 우리 부처님의
 뜻아 오신 難行苦行의 願을 좇아서 배울 뿐이고 그 밖의)
 단길을 빗가지 않을 것이다

畧 言註.

1. 貝易留隱 = 音借 소문 = 禁侍補助語 "슬"의 冠形
 制 소문.
2. 逐 = 訓借 동 = 從의 訓. 友伊音, 友 = 訓 "友"의
 畧借 모, 伊 = 音借 이, 音 = 音畧借 모, 比오 = "비오"
 의 表記.
3. 伊去旅 = 이아며 = 이어며 = 指定詞 "이"의 行等體
 續制 = 이어나.
4. 好尸卜下里, 好 = 訓 "호"의 畧借 도, 尸 = 音畧借 소
 歹 = "소"의 前次語, 卜 = 訓 "뎡"의 畧借 ㅈ = 尸의 漢
 法表示, 下 = 訓借 모 = 冠形制語尾, 里 = 音借 리 =
 "을" 末音 眞理 및 不完全代名詞 "이", 올이 > 只라
 當爲 終止制語尾.

第二十三. 恆順衆生歌

覺樹王焉, 迷伏隱乙 根中沙音賜焉逸良
 表音 覺樹王은, 아분(브니)을 불의 사미스니이라
 表語 覺樹王은, 입을 불의 삼스 이라
 現語 覺樹王은, 迷衆을 뿌리로 삼으신 이라
 大意 覺樹王(은, 부처)는 입은(곧, 迷衆)을 뿌리로 삼으신 어른이
 라 (곧, 佛과 衆生은 一身同體로서 이를 나무에 비하면 부처는
 花菓로서 衆生을 뿌리로 삼으신 이라)

2. 大慈悲水留潤良(乙), 不冬萎(王)內乎留(此)等耶
 音 大慈悲 물로 불아 (이), 안 들 이온 (은) 누오리 (리) 두라
 語 大慈悲 물로 불아, 안 들 이온 누을 두라
 現 大慈悲 물로 불러, 이물 들 아나물지라.
 意 (그런 까닭에 衆生을 당신의 몸같이 생각하여) 大慈大悲의
 물로 (그 뿌리를) 불려 주어서 (그 뿌리가) 이물지를 아나하느것
 이다

3. 法界居得丘物(此)丘物(此), 為乙吾置同生同死
 音 法界 그득 구물 (디) 구물 (디), 둥이 나도 同生同死
 語 法界 그득 구물 구물, 둥일 나도 同生同死
 現 法界 가득 구물 구물, 될 나도 同生同死
 意 (부처와 衆生이 그와 같이 一身同體인 것처럼) 法界에 가득히
 구물 구물(하는 거 衆生!) 過去世에나도 그와 같이 되었고 未來世에
 나도 그와 같이) 될 (이) 나도 (늘 그와) 同生同死(하는
 一身同體인 것이다)

4 念念相續無間斷 佛(佛)為尸如敬(如)好(如)等(如)耶

音 " " 불티(티) 為(人) 닷 敬(人) 호(고) 드(라)

語 " " 불티 為(人) 닷 敬(人) 홀(드)라

現 " " 부처 왕(듯) 敬(할) 지(라)

意 (그러므로 나는 늘) 念 = 相續하여 間斷 없이 (그 구물 구물 하는 衆生을) 부처 為(하)듯 恭敬할 것이다. (곧 부처를 恭敬하듯 恭敬할 것이다.)

5 打心 衆生安為飛等 佛(佛)頓(此)喜賜以福也

音 아(라) 衆生 變(안) 하(는) 든 불티(티) 문(듯) (스) 깃(스) 어(리)여

語 아(라)! 衆生 變(안) 하(는) 든 불티 문(듯) 깃(스) 얼(여)

現 아(라)! 衆生 變(안) 하면 부처 곧 깃(스)시(리)

意 (부처께서 늘 衆生을 爲하여 大慈大悲를 기뻐이듯이 나도 衆生을 위하여 받들어서) 衆生이 (憂患에서 벗어나서) 편안하게 되면 부처께서 곧 기뻐하실 것이다.

畧註

1. 7. 根 = 訓讀 本 (訓蒙字會의 "培"의 "본"을 "뿌리"로 음(訓))

中 = 意借 "안"의 變音 "애" = 上場所別助詞

불의 (根中) = 습(爲)의 筭 = 目的語

第二十四 普皆迴向歌

1. 皆 吾衣修孫, 一切善陵頓部叱迴良(只)
 表音 皆 나 의 닷 손, 一切 스 른 두 보 인 돌아 (只)
 表義 皆 나 의 닷 손, 一切 스 른 두 보 인 돌아
 現語 모든 나 의 닷 은, 一切 사 랑 모 다 들려
 大意 (이제까지 이르도록) 모든 나 의 닷 은 一切의 사 랑 (곧, 善行과 功德) 을 모 다 들 리 어

2. 衆生叱海(惡)中, 迷反群死史悟內去齊
 音 衆生 入 바 드 근 위, 이 보(中) 를 업 스 죽 이 는 아 든
 語 衆生 入 바 드 근 위, 이 보(中) 를 업 스 죽 이 는 아 든
 現 衆生 入 바 드 근 위, 이 보(中) 를 업 스 죽 이 는 아 든
 意 (그 모 다 들 리 어 사 랑의 願力으로 말미암아) 衆生 海에 (있는) 迷反群 死史 悟內 去齊 무리 가 (하 나 도 남 겼) 없 이 (다) 까 달 아 지 사 이 다

3. 佛(體)叱海(等)成(留)焉日尸帳, 懺爲如乎仁惡寸業置
 音 불 대(體) 入 바 드 (等) 일 (成) 연 들(留)은, 懺 후 도 모 나 좃 른 業 도
 語 불 대(體) 入 바 드 (等) 일 (成) 연 들(留)은, 懺 후 도 모 나 좃 른 業 도
 現 부 처 바 다 이 른 날 은 懺 후 도 모 나 좃 른 業 도
 意 (그 외 하여 온 세 상 이 清淨한) 佛의 海가 되는 날 에는 懺 후 도 한 바 인 (그 前의) 惡業 도

4. 法性叱宅(阿)叱寶良, 舊留然(叱)爲事置耶
 音 法性 入宅 舍 위 入 寶 라, 네 로 그 려(叱) 후 사 도 라
 語 法性 入宅 舍 위 入 寶 라, 네 로 그 려 후 사 도 라
 現 眞理界의 寶 라 고, 예 로 그 리 하 신 바 라
 意 (懺 후 한 뒤 에는 도 리 어) 法性宅(곧, 眞理世界)의 寶 라 고, 네 로 부 러 그 령 게 (말씀) 하 신 바 라 (위 한 하 면 그 惡業 이란 것 이 있 었 으

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懺悔가 있을 수 있고 善이 더욱
 밋날 수 있기 때문이다.

5. 病吟 禮 為 白 孫 佛 佛 伊 波 人 有 地 下 呂
 音 아라 禮 ㅎ 슬 손 븐 더 도 버 예 몸 이 바 능 잇 을 리
 語 아라! 禮 ㅎ 슬 손 븐 더 도 내 몸 입 가 능 잇 을 이
 理 아아! 禮 ㅎ 을 것 은 부 처 도 내 몸 잇 바 러 남 건 진 것
 意 아! 禮 ㅎ 을 것 은 (그 尊 貴 하 신 부 처 께 서 도 (衆 生 의 苦 를 대 신
 받 으 시 기 에) 버 몸 (곧 당 신 의 몸) 을 잇 바 러 여 (곧 疲 勞 하 게 하 여)
 남 (곧 解 脫 을 얻 은 衆 生) 이 있 게 한 것 이 다. (아 겠 은 華 嚴 經
 普 賢 行 願 品 의 ' 所 感 一 切 極 重 苦 果 我 皆 代 受 令 後 衆 生 悉 得
 解 脫 ' 의 뜻 을 노래 한 것)

畧 言 主

2. 7. 悟 = 訓 言 讀 又 意 = '깨우-' 의 前 次 語 = 總 結 无 盡 歌 의
 '邊 衣'. L. 去 齊: 去 = 訓 借 아, 齊 = 音 借 도, 아 도 =
 ~어디 ('전로되는' 뜻의) 의 前 次 語 = 讚 善 婆 即 歌 의 '良 齊'

5. 7. 孫 = 音 借 손 = 不 完 全 代 名 詞 之 變 形 '손' + 特 殊 助 詞 'L. ~'
 '白 鳩 呀 현 사 향 라 못 이 들 손 裋 衣 로 다, 무 칩 고 섬 거 을 손 아 마 도
 西 楚 霸 王' 의 '손'

L. 伊 波 = 音 借 이 바 · 입 아 = 잇 보 (瘡) 의 前 次 語 ' 입 ' 의 修 飾 制.

第二十五. 總結无盡歌

1. 生界盡尸等(隱), 吾(依)願盡尸日置仁(伊)而也
 表音 生界 다그르든 (나), 비 (이) 願 다그르놀도이 (이) 스 여
 表語 生界 다올든, 비 願 다올 놀도 잇은여
 現語 生界 다하면, 비 願 다할 날도 잇은리
 大意 衆生果가 다하면 나의 願도 다할 날도 잇을 것이다(그렇지 않은 限, 나의 願은 다할 날이 없을 것이다 = 華嚴經卷四十의 "言滅悔業者... 衆生界盡 衆生業盡 無生煩惱盡 我懺乃盡" 및 同偈의 "運至虛空世界盡 衆生及業煩惱盡 如是一切无盡時 我願究竟恆无盡"의 뜻.)
2. 衆生比邊衣于音毛, 際毛冬留原頤海伊過
 音 衆生 人 又 이 모 口 들, 又 모 든 리 願 海 이 와
 語 衆生 人 又 이 음 들, 又 모 들 願 海 이 와
 現 衆生 깨 음 들, 끝 모 를 願 海 이 와
 意 (원, 生界 다하기 前에는 나의 願도 다할 날이 없느냐 하면) 저 衆生을 깨움 (곧, 깨우는 일) 들은 끝을 모를 (나의) 願海 (인 깨움) 이 와! (譯詩의 "師意要驚俗子夢"의 뜻)
3. 此如趣可伊羅行根, 向乎仁所留善陵道也
 音 이 듯 닷 아 이 르 녀 르, 안 오 나 부 리 스 른 길 여
 語 이 듯 닷 아 이 르 녀 르, 안 온 볼 스 른 길 여
 現 이 듯 닷 아 이 리 예 니 向 하는 노래 가 사랑 길 이어
 意 (普賢菩薩은 이위 말한) 이 처 럼 닷 아 이 렇 게 향 하였 으
 (그 普賢菩薩의 가 복 한 功德을) 向慕 하는 노래 가 (곧) 사랑 의 길 이어! (곧, 慕를 닷는 길이다) (法歌能代頤王詞의 뜻)

4. 伊波普賢行願. 又都伴(約)此奉伊置耶
 아 바 普賢行願. 도 다 불덕(의) 사 일 이 도라
 語 임아 普賢行願. 도 다 불덕 일 이 도라
 現 잇배하여 普賢의 行한 願은. 도 다 부쳤 일인 바라
 意 (이제서 普賢을 向慕하는 것이 곧 사랑 길. 곧 義를 닦는 길이
 되는가 하면) (당신의 몸을) 疲勞히하여 普賢의 行한 願
 이 (곧) 도 다 부쳤 일인 가답이라 (그러므로 普賢을 向慕
 하는 것이 곧 부귀를 向慕하는 것이매. 이것이 곧 사랑 길인
 것이다) (欲近真源莫厭疲의 뜻)

5. 阿耶. 普賢此心(當)阿于波. 伊留此餘(音)良他事捨
 音 아라. 普賢사 마음(의) 안오바, 이로 사 남(의)아년일말도
 語 아라! 普賢사 마음 안오바, 이쪽 남아 년일말도
 現 아아! 普賢사 마음 向하고져. 이 밖에 단일말것
 意 아! 普賢의(그 거룩한) 마음을 向하고았으며, 이로의 밖의 다른 일
 은 말 것이다 (大堪隨學普賢慈의 뜻)

畧註

1. 仁伊而也. 仁=音畧借이. 伊=仁의 讀法來示. 而=音借은(而=然. 然의 古音=은) 也=여. 이은어=잇은어=잇을어=잇어.

3. 趣=割借도(趣=趨=走=도; 趣=도. 단다가)=뜻(약)의 借記. 所留. 所=割借되. 留=音畧借고. 本="노래"의 原語(風流=本. 八阿=본문=歌會. 唱=本=歌)

4. 伊波=普賢廻向歌註 5. 4.

5. 7. 阿于波. 阿=音借안(古書讀法이 善切音邊 經說有阿羅一原 此古說) 于=音借오, 波=音借바. 안오바="안오브"의 感發的 終 止制. 안오브=안오브(向하고되-). (向入=안들어. 向事=안일). 本. 餘音良=남아=是沙 餘良의 餘良="山 넘어"의 넘어=밖길.

(完)